

## 총회소식지 8

친애하는 형제 자매들께,

성바오로수도회의 9차 총회는 5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바오로가족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총장 실비오 사시 신부가 집전한 미사로 막을 내렸습니다. 강론에서 사시 신부는 “거의 백 년 만에 우리는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를 통해서 받은 ‘카리스마’를 9차 총회를 통해 창조적인 신뢰 안에서 쇄신하고자 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하려 하는 그 특성을 계속 가치롭게 하기 위해 바오로 카리스마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재확인했다는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성바오로의 사도적 방법과 영성으로써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고유성 안에서 21세기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존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시 신부는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 ‘새로운 사고방식’ ‘평행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이해되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안에 “그것은 단지 주기 위해서, 제안하기 위해서, ‘증언의 직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다른 이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존재가 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총원장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새로운 복음화’의 계획”에 스스로를 개방하도록 초대하면서 복자 알베리오네를 인용하여 전세계의 모든 바오로인들을 격려하는 말로 강론을 매듭지었습니다. “보다 앞으로! 항상 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바오로 사명의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기준 삼아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

총회의 마지막 며칠은 매우 바쁘게 움직인 시간이었습니다. 총원장과 총평의원 선거 이후에 저희는 총회 앞에 제기된 우선 순위와 실행 노선들을 확정하기 위해 그룹 작업을 계속하였습니다. 문헌의 최종안이 본회의장에 제출되자 매 사안이 토론에 부쳐졌고 다양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으며 표결을 통해 2/3의 다수결로 모두가 받아들인 안을 만드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향후 육 년을 위한 일반 목표와 우선 실행 사안들 그리고 이에 따르는 실행 노선들이 새로운 총통솔에 맡겨졌습니다. 최종 문헌은 몇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사도직으로 시작하여 공동체 및 영성, 성소 사목과 양성, 관리와 권위의 봉사로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바오로가족을 다루는 항목이 있습니다. 총회에서 최종문헌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승인한 것은 5월 13일 목요일과 14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성바오로수도회의 창립 백 주년에 생각하는 바오로인의 정체성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담은 문서를 전체 문헌의 맨 앞에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총회 초기 며칠 동안 숙고한 결실인데 저희는 이로써 세상과 교회에 대해 현재 바오로적 카리스마가 의미 있음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창립 백주년을 맞아 성바오로의 발자취 위에서 우리 모든 바오로인들, 즉 사제들과 평수사들은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를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새롭게 하는 데 매진한다. 창조적 신뢰 안에서 믿음과 열정, 넓은 마음, 새로워진 사도적 열정, 그리고 우리 첫 바오로인 세대들을 특징짓는 일치라고 하는 같은 정신을 통해서 그 선물을 새롭게 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바오로의 봄’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총회대의원들로서 저희는 또한 바오로가족과 저희 협력자들인 지원들을 향한 특별한 메시지를 두 가지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총회 폐막 미사 강론에서 실비오 사시 신부가 상기시킨 것처럼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는 모든 형태의 삶을 사는 사람들 즉 사제들, 봉현생활을 하는 평신도들, 수녀들, 재속 봉현 생활을 하는 남녀들, 결혼생활을 하는 이들, 협력자들을 복음화를 위해 일하도록 움직였던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이 총회를 지켜보아 주고 지속적인 기도로 동반해 주신 여러분 각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 5월 15일 아리챠(로마)

홍보담당 비서 안토니오 리콜로 신부